

이미 지나온 길 이제 가야 할 길

이 가을의 시집 서평

조영복

문학평론가

시인들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90년도가 한참 지난 지금에도 두꺼운 서사시집을 내는 고은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시인들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이 있다.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어서 그 길의 지형을 아는 이는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은 고통과 회환으로 가득차 있고 이제 가야할 길은 저만치 침묵한 채 뒤엉켜 있다. 어느 길이 가야할 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지금껏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장정은 그래서 모험과 설레임으로 가득 찬다. 그것이 절망에 근접한 황홀이거나 황홀에 다가서는 절망이라도 그 길, '가지 않은 길'의 길 나섬은 운명적이다. 그것은 새로운 상상력의 비빔밥을 요구하며 새로운 '항수'를 만들기 위해 탐욕의 후각을 곤두세우는 그루누이의 기갈스러움을 요구한다. 시인은 새로운 상상력의 혼합을 위해 길 위에 버려져 있다. 그들은 '겨우 존재하는' 작은 것들에 관심을 돌리고 내밀한 죽음의 유혹들에 매혹당하면서, 부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무엇이냐 생성에 대한 우주적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은 꿈꾸기의 미세한 차이를 자신의 언어로 감지하고, 자기만의 육체를 통해 드러낸다. 오세영에게서 그것은 가슴에 별을 품기로, 김지하에게서는 중심 비워내기로, 김혜순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육체의 흔적 지우기로, 이갑수에게는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박형준에게는 과거의 소멸로, 신현림에게는 불타듯 떠오르는 새로운 육체에 대한 갈망으로, 강현호에게는 불모의 사막에서 꾸는 아름다운 꿈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력의 저 깊은 기갈스러움의 협곡보다는 야트막한 내면의 언덕들에 머물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상상력의 장정

별은 '아직도' 시인에게 길을 밝힌다. 서사시적 세계 이후에는 오직 시인들만이 별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오세영은 지상으로 별을 끌어 내린다. 존재의 심연은 어둡다. 광장의 함성은 사라지고 "백색의 무거운 침묵"만이 놓여 있는 땅, 차가운 존재의 심연에서 모든 것은 스러져가고 시인은 천년 전 미이라에게서 시간의 결빙을 느낀다. 시인의 의식은 얼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별들이 희미한 한 줄기 빛을 타고 내려와 지상의 길을 밝힌다. 우주에 대한 꿈은 영원성의 동

경이면서 지상적 존재의 허무함의 다른 이름이다.

꺼져가는 지상은 밤이 깊은데/자정에 홀로 깨어 치어다보는 우주,/누가 하늘 문 열고/물끄러미 나를 내려다 보고 있는가,/神의 마을에서는/지상의 등불들이/별이러니(오세영, 「지상의 별」)

신들은 그리움으로 우주를 밝히고 있다. 신도 자신의 우주를 꿈꾼다. 신들의 우주는 지상이다. 지상에서의 별은 시인이다. 지상에는 시인들이 각각 가슴에 별을 품고 산다. '빛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시인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빛나야 하는 것일까. 엔디워홀이 보여주는 「시인과 뮤즈」는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기술사회에서 시인과 뮤즈가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시인과 뮤즈는 이상하게 뒤엉키고 설켜 서로의 가슴을 짓누르고 머리를 감아준다. 그들은 로봇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기묘한 형상을 하고 색채의 미술 속에 던져져 있다. 뮤즈는 영감을 주는 존재도 아니고 시인은 그 영감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그들은 다만 고뇌한다. 그의 다른 작품들이 그러하듯 거기에는 인간 삶의 유한성이 주는 슬픔과 죽음의 비장함이 놓여있다. 그 그림은 나약한 예술가의 영혼이 누워있는 도피처도 아니고 그렇다고 뮤즈가 자신의 육체를 시인의 영혼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현대의 생존을 넘어가는 육체의 피로함이 있다. 엔디가 보여주는 뮤즈와 시인의 뒤엉킴은 신들이 엿듣기를 원하는 지상에서의 시인의 노래일지도 모른다.

박형준은 이제 소멸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은밀히 가슴 속의 별을 내 보인다.

허름한 가슴의 세간살이를 꺼내어 이제 저문 강물에 다 떠나보내려나/순한 개가 나의 육신을 남겨 놓고 눈 속에 넣고 간/나를, 수천만 개의 반짝이는 눈동자에 담고 있는/멀리 키 큰 옥수수밭이 서서히 눈꺼풀을 내릴 때//박형준,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그가 강물에 흘려보낸 가슴의 세간살이엔 유년기의 추억과 방위병의 군가 소리와 손자

를 엮고 나온 노인의 갈퀴같은 손이 전해주는 일상의 나른한 시간과 문짝 떨어진 고향의 집들과 잃어버린 사랑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며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이다. 지나간 시대의 송가이며 존재의 소멸과 부재의 생성에 대한 미묘한 눈뜸이며 뮤즈가 전해주는 낯선 언어의 시작이다.

'겨우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우주를 꿈꾸기

시인의 육체는 전보다 훨씬 고난의 길에 버려져 있는 것 같다. 그 '결함의 육체'가 보여주는 비장함은 존재의 어떤 '부재'로 이끌어 간다. 그들은 땅끝에서 유배된 자로서 있기도 하고 제 생애를 가리는 길 위에서 눈물 흘리기도 한다. "앞서거나 뒤쳐지는 게 운명이라서"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들은 길을 나선다. 혹 잘못 든 길을 가더라도 그 이름은 아름답지 않은가. 비단길! 그 길에서 강현호는 아름다운 시인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

그는 우주로 떠났는데 그의 시집은 이제 야 내 책꽂이에 꽂히고, 안타까웠지만 언젠가 사랑은 조금씩 늦게 온다.../남은 사람들이 슬퍼 그의 시집을 읽으면 누구든지 더 이상 우주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가 그토록 아껴 닦았다는 램프를 켜두고 저기 우주의 한가운데 길 밝혀 서 있을 것이므로.(강현호, 「슬픈 일만 나에게」)

이 세상에 머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한 시인이 램프를 켜고 우주의 길 한가운데 선다. 세상이 환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시인들이란다. 그러한다. 모든 빛나는 별들이 내려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침묵한다. 말은 침묵하고 육체는 얼어 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너무 깊고 차가운 것이어서 자기의 생애를 단 한번의 울음으로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인화돼 있다. 사람들은 긴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시인의 램프 불빛을 경이감과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일상의 잔해는 저 우주 속으로 소멸해 들어간다. 가슴은 "웅크린 집들이 추위처럼 흔들리는" "빈 들"이 된다.

비어있는 몸은 가끔 불안하다. 불안한 육체는 다른 "정든 마음들"을 꿈꾼다. 아! 나는 물고기가 되고싶다. 물고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통곡 소리를 노래이듯 듣고

싶다. 그 노래는 다시 이상한 곳으로 자신을 이끈다. 자신의 그림자는 자기 몸 바로 옆에 붙어있다. 노래는 사이렌의 언어처럼 '저 너머'에 있는 것의 찬란함을 예정해 주다 결국은 소멸하고 마는, 침묵이나 부재의 공간으로 이끄는 불모의 언어가 숨쉬는 곳이거나 이 곳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 지나쳐버린 곳의 바다이다. 그래서 신현림의 그림자는 통곡한다.

내 온몸 소름 돋는 비늘 바다 그림자가 얼룩져간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의 서러운 그림자가(신현림, 「나는 물고기가 될테야」)

너무 이르게 찾아든 시간의 강물은 그를 목까지 훑치며 사라져가고 너무 늦어 그대의 부재를 노래하는 자의 서러움은 이 미궁의 목숨에 비틀거리다. 그의 희망은 거의 불능에 가깝고 "단한 책같은 도시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과녁을 쫓는다. 그의 육체는 저 찬란한 빨간 물고기의 육체로 살어나 저 우주를 향해 불타듯 날아오른다. 그것은 잔인하고 아름답다. 부재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육체가 시작되었던 저 우주를 향해.

우주는 그리움의 길이만큼 은하수를 거느린다. 스티븐 호킹의 검은 구멍과 아기우주가 불박이 채송화처럼 자리하는 곳, 그곳은 끝끝내 돌아갈 우주이며 내 고향이다. 너무 미세해서 가여운 존재들. 이 지상에서 자신의 하얀 뼈와 중심의 육체를 소멸시킨 자만이 도달하는 거리이다. 김지하는 중심을 비워내고 거기에 부재를 채운다. 중년이 넘어서서야 김지하는 겨우 중심의 비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부재에 대한 인식은 젊은 시인들에게는 생성적 언어의 상상력으로 작용하고 김지하는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게 한다. 그것은 우주적 생명력에 대한 인간의 겸허함이며 육체 비워내기이다.

내 몸에/살 떠나고//빠만 남았구나//흰 햇살 눈부신/뺨속에서/무지개 꿈꾸고/뺨속에서/풀잎 자라고 해와 달 뜨고/밤낮 갖치는 소리 들린다//(김지하, 「一山詩帖·5」)

이 세상의 중심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흔들렸는가. 그것은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와 내 존재의 꽃을 피우려 하지 않았던가. 존재는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문학·예술이론 도서들 !

저 부채를 향하여 몸을 다 비워낸다. 한 시대의 중심에서 흔들리며 괴로웠던 시인은 “내장 없는 육체”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그는 사만의 육체를 가진다. 사만은 자신의 육체 안에 풀잎과 해와 달과 같은 영성스러운 것들을 ‘굿쳐서’ 불러낸다. 사만은 영성스러운 것들과 한 몸이 된다. 비의적인 목소리를 드러낼 정도로 중년을 넘긴 시인의 목소리는 “노인스럽다”. 고통보다는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젊은 시인은 육체가 고통스럽다. 비워내도 그것은 바로 삶의 땅, 이 영토에 딱 붙어 있다. 그저 꾸는 우주의 꿈은 자신의 육체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저 우주에 대한 꿈, “겨우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외감을 이감수는 “큰 세상”의 풍부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곳으로 사라져 가는 것들.../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넓히고/풍부하게 하여 주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지금 이 곳에 머물러 있는 자기를 홀깃 본다. 나는 누구인가. 아침마다 거울을 꺼내본다. 백사장에 가서 내 이름을 써 본다. 나의 이름은 얼마나 낯선 채로 거기 그렇게 놓여져 있는지. 그것마저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지. 나의 이름은 부채하고 나의 생애는 음택에도, 내 지나온 삶의 허깨비 같은 그 그림자 집에도 입주하지 못한다.

되돌아보면 지나간 것들은/모두 어디론가 숨었다/그것들을 찾을 때까지/나의 그림자 집, 陰宅에 입주하지 못하지만/최근 나는 無心코 내뱉는 말들/우리 말의 경건성에 대해 놀라고 있다.//(이갑수, 「이제부터」)

시인들은 자신의 우울한 생의 그림자를 그려낸다. 그 위에는 텅 비워버린 육체가, 중심이 없이 밀려난 존재가 음각되어 있다. 그들은 존재의 상실을 말하기보다는 부채의 그리움에 대해 노래한다. 육체의 비워버림에 대해 그 경건성에 대해 놀란다. 부채의 존재성은 저 무한한 우주의 침묵으로 빛나는 아기 우주의 작은 도서관이 된다.

가을의 시집, 아기 우주의 작은 도서관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에 유혹되어 가는 그곳은 언제나 사막이며 언어가 침묵하는 타클라마칸의 모래 언덕이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머리를 감고 있다. 그의 몸은 육체가 없다.

가슴도 몸도 머리칼도 허벅지도 허리도 없는 여자. 그 불모의 언어로부터 여성의 육체는 시작한다. 그 몸없는 육체는 사막에서 메마른 머리를 빗고 있다. “없는 허리”를 한 번도 펴지 않고 여자는 노곤하게 머리를 감는다. 여성의 언어는 저 사막의 불모성 바로 위에 성채를 쌓아 올린다. 그 육체는 성채에 갇힌다. 성의 맨 어둡고 습기진 곳에는 블라인드까지 쳐진 방이 있다. 그 방은 책의 우주이며 광기의 성소이며 끓는 육체가 유희하는 환상의 공간이다. 사이렌의 노래가 유혹한 저 너머의 공간에 이처럼 육체가 침묵하는 언어가 있고 몸의 부채가 있다. 김혜순은 그 사막에서 육체를 만들어 나간다.

가슴도 없는 여자가/머리칼도 없는 여자가/오 몸도 없는 여자가 머리를 감고 있구나//김혜순, 「타클라마칸」

싸늘한 나무와 얼음같이 찬 우물이 있는 길, 그러나 그 속에 몸을 던져 육체를 소멸시키고 싶은 길이며 인적없는 골목길이다. 그 길은 한 문치 심장으로 꽂혀 있어 생명이 넘친다. 그 같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억압의 육체가 숨통을 트이는 길이다. 캄캄한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나의 몸 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비의 몸이 되고 아이들은 다 물이 된다. 나의 자궁은 여성들만의 도시 이즈의 그것처럼 물로 가득찬다.

아직도 누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흙구덩이를 파고 있는가. 아버지의 유물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억압을 블라인드치고 있는가. 아버지의 박물관은 폐허가 되었고 어머니의 육체는 젖은 몸 밖으로 햇살을 내어준다. 아버지의 육체란 무엇인가. 지나온 길의 흔적 아닌가. 시인들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면서 우주적 상상력의 반죽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집인 시집을 햇빛에 내어 말린다. 시인들은 여전한 길 위에서 있다. 육체 없는 언어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제 길다 먹어치우고, 만들어지는 육체조차 먹어치우며 가는 “배추 흰나비의 길”이다. 그 길의 자유로움은 초록의 빛처럼 환하다. 이 얼마나 따뜻한 대낮인가.

시집의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가봐요!
우리/젖은 글씨를 햇살나무에 매달아요.

文學이란 무엇인가

장 폴 사르트르/김봉구 譯 4500 원

詩學

아리스토텔레스/천병희 譯 5000 원

小說의 理解

E. M. 포스터/이성호 譯 4000 원

文學의 理論

르네 웰렉·오스틴 워렌/이경수 譯 8000 원

文藝批評과 理論

발터 벤야민/이태동 譯 6000 원

문학교육론

제임스 그리블/나병철 譯 6000 원

文學이야기

윌·에어리얼 듀란트/이경수 譯 8000 원

詩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즈라 파운드/이덕형 譯 6000 원

춧불의 美學

가스통 바슐라르/이가림 譯 4000 원

물과 꿈

가스통 바슐라르/이가림 譯 6000 원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빈센트 B. 라이치/권택영 譯 7000 원

페미니즘과 文學

크리스테바 외/김열규 譯 8000 원

정신분석비평

엘리자베트 라이트/권택영 譯 6000 원

現代文學理論

앤 제퍼슨 외/김정신 譯 6000 원

산문의 시학

토도로프/신동욱 譯 6000 원

文藝學의 形式的 方法

미하일 바흐친/이득재 譯 6000 원

패러디 이론

린다 허천/김상구·윤여복 譯 6000 원

문학의 위기

김옥동 著 7500 원

포스트모더니즘과 文化

권택영 編 9000 원

신비평 이후의 비평이론*

프랭크 렌트리키아/이태동 譯

우리의 傳統과 오늘의 文學

김열규 著 6000 원

오늘의 文學과 批評

김윤식 著 6000 원

韓國近代文學과 時代精神

권영민 著 4500 원

韓國現代小說의 位相

이태동 著 6000 원

韓國文學의 社會史的 意味

정현기 著 6000 원

韓國文學과 間島

오양호 著 6000 원

韓國義賊小說史

장양수 著 10000 원

文學의 論理와 轉換社會

오양호 著 7000 원

민중영웅이야기

조동일 著 7000 원

韓國現代小說의 解剖

조남현 著 11000 원

우리文學의 現實과 理想

이태동 著 12000 원

韓國文學의 近代性 批判

김윤식 著 12000 원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조동일 著 8000 원

우리 小說과 求道精神

이동하 著 12000 원

韓國繪畫의 傳統

안휘준 著 20000 원

韓國의 佛像

황수영 著 20000 원

韓國의 陶磁器

정양모 著 25000 원

韓國의 傳統建築

장경호 著 35000 원

韓國陶磁史研究

윤용이 著 25000 원

韓國의 石造美術*

진홍섭 著 25000 원

韓國繪畫史研究*

홍선표 著

한국의 현대미술

서성록 著 13000 원

현대미술의 개념

니코스 스텐고스 編/성완경 譯 12000 원

美術史란 무엇인가

마크 로스킬/김기주 譯 8000 원

美術批評史

리오넬로 벤투리/김기주 譯 8000 원

美學의 理解

김문환 編 9000 원

中國의 山水畫

마이클 설리반/김기주 譯 7000 원

藝術과 人間

어윈 에드만/박용숙 譯 3500 원

藝術의 意味

허버트 리드/박용숙 譯 6000 원

藝術과 文明

케네드 클라크/최석태 譯 7000 원

* 近刊

文藝出版社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대표전화 393-5681 / 팩시밀리 393-5685